

한, 독 청소년의 매체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문화관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모상현*

초 록

본 연구는 한, 독 청소년 간 매체폭력 자극의 구성양식과 문화적 요인에 의한 정서경험의 분화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사건에 대한 총체적 자기개입을 의미하는 관여도 개념을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희생자-가해자-도식을 통해 유발 될 수 있는 반감정이입의 중재를 통해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단순한 문화관여보다는 반감정이입의 중재에 의한 문화 조절 작용이 한, 독 청소년 간 다양한 정서체험과 그 분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매체자극 속성과 - 희생자-가해자-도식이라는 규범 불일치성의 유무(有無) - 문화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매체사건이 도덕적 판단을 요하는, 즉 선악구도에 의해 가해자-희생자-관계가 확실하게 대비 될 때 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공유된 신념은 문화 간 보다 분화된 정서적 체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문화관여, 반감정이입, 정서분화, 규범 불일치

* 한국사회과학 자료원 전임연구원

I. 서 론

광주항쟁의 비극을 다룬 매체사건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참함을 다룬 시, 청각 자극이 한, 독 청소년들에게 함께 제시 될 경우 이들에게 동일한 정서경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달리 두 문화 집단이 서로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각각의 비극적 매체 사건에 대한 양국 청소년의 매체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로 부터 본 연구는 매체정서경험에 미치는 문화효과의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실시되어 졌다. 일반적으로 두 문화 집단 간 반응양식이 매체를 구성하는 물리적, 형식적 특성에 의한 자극의존 반응과 사건의 의미에 대한 의미관여 반응으로 분화 될 수 있다면 문화적 맥락은 정서 분화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매체사건을 수용하는 시청자의 지각양식은 사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심리적 현상으로 수용자 개별 특성은 물론 문화적 성격까지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사건이 가해자-희생자 구도를 분명히 드러낼 때 감정이입이나 반 감정이입 같은 감정적 요소는 문화 집단 간 보다 분화된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 시킬 수 있다. 특별히 한, 독 양국의 치부를 드러낸 예에서의 두 사건은 역사적 비극으로 가해자-희생자 도식이 뚜렷이 대비되며, 개인의 의식과 삶의 면면에 각인된 도덕적 인식에 근거한 판단을 요구받을 수 있다. 단순자극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정향반응 방식과는 달리 특정 문화에 대한 규범적 내용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된 한 문화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감정적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독 청소년의 규범 불일치 사건에 대한 정서경험은 자기 관여적 감정을 넘어선 문화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자신의 도덕관이나 가치관에 상응되는 문화 간 규범적 인식차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해자-희생자-도식으로 구성된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매체 사건에 대한 한, 독 청소년 매체 정서 경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규범 불일치 성 여부에 따른 양국 청소년 집단 간 반응양식의 분석을 통해 매체 정서 경험에 대한 문화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관여에 대한 문화적 함의

전통적으로 TV나 영화로 대표되는 시청각 매체를 통한 정향반응으로서 정서에 대한 연구는 자극일반화 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¹⁾. 매체 사건에 대한 사실적이며, 자극적인 묘사 등을 통해 정서적 각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Cantor, 1994, 2003). 그러나 이러한 자극 정향 반응 또한 수용자 동기, 관심, 태도, 계층, 문화 등 개인차 변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용자 자신에 의해 구축된 반응양식의 결과이기도 하다(S-O-R-Model). 특별히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제시된 사건이 시청자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에 그와 유사한 경험을 자신 스스로 체험했던 경우, 즉 미디어의 내용과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어(involved)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시청자와는 다른 반응양상을 보여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맥락에서 특정 미디어주제들이 수용자들에게 구체적이며 명시적일 수 있을 때 사건의 주제는 주어진 현상에 대한 단순한 묘사 이상의 문화 관여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의 주제가 한 문화권의 구성원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결합 가능할 때 그 실제성에 대한 인식적 공유를 기반으로 동일한 정서적 체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와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그 상호의존성은 관여 행위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행위심리학에서 문화는 개별 행위에 의해 축적된 결과물인 동시에 특정 행위방식의 개연성을 규정해 주는 행위수단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 준다(Boesch, 1980). 문화적 관여행위를 조율하는 준거는 1. 집합적 목적성 2. 사회적 규범, 가치 및 기준 3. 구성원 간 공유된 역사관등에 정초될 수 있으며 한 문화 내에서 수렴 될 수 있는 구성원 간 정체성에 그 바탕을 이룰 수 있다(Straub, 1999a). 첫째, 한 문화권 내에서 유여되는 유전적 소여성(Gegebenheit)은 심리, 사회적(meme) 기능을 통해(network), 동질화된 문화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받을 수 있

1) 매체 정서의 유발을 조건화 과정에 바탕을 둔 일반화 이론에 따르면 매체 사건이 실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아닌 허구적 묘사임에도 수용자는 이에 상응한 정서들을 체험 할 수 있다(Scherer, Wallbott & Summerfield, 1986; Hussong, 1998; Mo, 2000). 매체를 통해 유발된 정서는 실제 상황과의 유사성을 바탕을 둔 연합의 결과일 수 있으며, 학습의 일반화 원리를 통해 습득된 시청자의 수동적 정향 반응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다 (R. Dawkins, 1976). 둘째, 한 사회 혹은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선택적 욕구는 대인 의사소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심 규범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다(Heath, Bell & Sternberg, 2001). 셋째, 지리적, 사회적 근접성은 대인상호작용을 촉발하며, 이를 통해 공유된 행동 및 사고양식들은 하나의 체계화된 신념으로 구성원들 안에 수렴 된다(Harton & Bourgeois, 2004). 이를 통해 한 문화권 안에 정착된 가치 및 규범유형은 개별행위가 그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선별, 수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로서 개인의 발달 및 사회화 과정에 대한, 내면적이며, 외형적 체계의 총체로서,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각각 상황에 대한 개인적 적응행동양식의 동일성을 담보해 주는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오랜 세월동안 내면화 된 문화적 정체성은 개개의 행위활동의 준거로서 각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각 될 수 있는 관여 행위를 조율하며, 도덕적, 합법적, 사회적 승인은 문화적 규범도식과 결부되어 평가 받을 수 있다²⁾. 그러므로 문화는 행위 결과의 이면에 존재하는 관여성의 바탕이 되며 문화 간 다르게 지각, 평가 될 수 있는 선행 조건으로서 조절 변인으로 함의 될 수 있다³⁾.

Ⅲ. 매체 정서 분화의 메커니즘: 감정/반감정이입

누구나 드라마나 영화를 관람할 경우 그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드라마 시청으로 인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감정변화는 시청자의 감성작용(affective working)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시청되는 동안 수용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긴장과 이완을 통한 성향(disposition)의 변화들은 등장인물에 대해 시청자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형성하고,

2) 만약 매체 사건이 규범에 어긋날 경우 - 예) 가해자-희생자-도착 수용자 개인의 자기 규준(internal)은 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external)결부되어 판단, 평가 될 수 있다 (Scherer, 2000, 2001a).

3) 문화 자체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위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문화 간 연구에서 준거 변인에 대한 조절 효과의 결과로 간주되어 왔으며 (Lonner & Adamopoulos, 1997), 준 인과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Trommsdorf, 1993; Markus & Kitayama 1991; Kim, 1999; Ekman, 1993; Triandis, 1995).

유지하며, 변화시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Zillmann, 2000). 질만(1996)은 수용자의 불안정한 감성은 등장인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도식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안정된 성향을 만들어 나가며, 이를 통해 긍정 및 부정적 감정을 체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청자들이 자신의 기존도식에 잘 맞는 등장인물에 대해선 긍정적인 성향을, 잘 맞지 않는 인물에는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등장인물의 호감과 반감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재미를 규명하려고 했던 감성성향 모델(affective disposition based theoretic model)은 시청자 자신의 감성적, 인지적 자원에 근거해 매체자극이 수용되는 동안의 다양한 정서 상태의 변화를 예측해 주고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호감과 반감은 감정형성의 사전단계로 그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도덕적 판단 양식은 극중 인물행동에 대한 감성 성향에 따른 다양한 정서분화의 메커니즘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Zillmann, 1991a, 1991b, 1994).

레이니(Raney, 2002)는 범죄물 같은 드라마 장르에 대한 재미의 정도는 시청자들 사이의 다양한 도덕적 개념 및 판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재미와 반감에 대한 도덕과 제재라는 대립구도(moral-sanction relation of delight and repugnance)는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의 원리로서 이는 단순히 재미의 차원을 넘어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극중에서 문제해결을 악의 제거를 통한 정의의 구현 내지 도덕의 실현이라 할 때 등장인물에 대한 호, 불호에 근거한 성향들은 그 이전에 자신의 규범내지 도덕관에 기초한 시청자의 판단양식 및 수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복합적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드라마상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과 같이 불수의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인지와 별개로 진행되는 자동적 정서의 유발을 가져오기는 힘들 수 있다 (Zajonc, 1984). 감정과 인지는 통합적으로 작동하며 정보원으로서 사건과 연합된 경험들을 이미 기억 속에 축적하고 있다면, 원천 사건이 지닌 의미는 인접된 정보 단서의 활성화를 통해 특정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평가과정을 통해 정서를 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cherer, 2000).

매체정서유발에 있어 감성과 인지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레이니와 브라이언트는 이 두 요인사이의 통합작용(integrated working)에 근거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2002).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 - 특별히 선과악의 구도로 진행되는 - 시청자는 감성과 인지적

요소를 투입하게 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입된 메시지요소에 -
 예) 등장인물의 성격적 특성 및 행위 유형 - 대한 평가적 정보들을 제공 받게 된다.
 시청자가 등장인물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호감과 반감을 통한 감정이입(empathy)이나
 반감정이입(counterempathy)같은 감정적 요소는 개인의 태도나 신념 같은 인지적 요소
 와의 통합을 통해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의 도덕관이나 가치관에 상응되는 판
 단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즉 희생자-가해자-구도(the victim-assailant-plot)의 미디어사
 건에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을 때 시청자로부터 도덕적 추론을 요구
 받게 된다. 등장인물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승인 될 수 없는 비규범적, 비윤리적일 때,
 즉 시청자의 규범적 판단에 반할 때, 자신의 도덕적 성향에 근거한 평가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특정 비규범적 사건에 대한 규범 및 도덕적 평가과정에서 시청자 간 인식수
 준 및 인지내용은 개인차를 반영하기에 다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문화 간 도덕적
 인식 및 인지내용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다. 가해자에
 의해 자행되어진 폭력행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서로 다른 인지의 내용과 범위
 를 요구 받듯이, 문화에 따른 차이 또한 그 정도를 함의할 수 있다.

성향이론에서 감성과 인지의 통합된 형태로 전개되는 도덕적 인식절차는 일련의 단
 계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Zillmann, 1998)⁴⁾. 상기 모델에서 인지적 추론에 따른 도
 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의 호감-혐오-인물에 대
 한 감성분화 과정은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기대(anticipation)와 염려(apprehension)
 라는 요인들 간의 함수적 관계로 설명 될 수 있다(Zillmann, 2000).

- 행위정당화 조건하에서(justice condition) 긍정적 감성성향 : 폭력행위의 승인이라
 는 측면에서 매체등장인물의 행위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부정적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두려움의 정도는 등장인물에 대한 호감정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즉
 유발된 긍정적 감정은 매체호감인물의 성공과 비례하며 그들의 실패와는 반비례
 한다.

4) 희생자-가해자-구도에서 진행되는 매체 유발 정서 발생 기제는 다음의 단계별 과정을 통해 전개 될 수
 있다. 1. 매체 등장인물 즉 가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 행동 및 상황 관찰(perception/assessment)
 2. 등장인물에 대한 - 특별히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평가할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3 & 4. 희생자 및 가해자에 대한 기대와 염려 (anticipation & apprehension) 및 감정이입
 및 반감정이입이 조합된 결과로서 감성의 분화 과정 (affective disposition difference) 5. 사건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다양한 매체 정서의 유발 (response to outcome/emotion).

- 행위 비정당화 조건하에서의 부정적 감성성향(injustice condition) : 도덕적으로 승인이 거부된 폭력은 긍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되며, 해당 인물 비호감도와 정적관계를 보여준다. 행위 비정당화 즉 불의조건하에서 희생된 인물은 가해자에 대한 혐오를 촉진시킨다. 혐오의 강도는 1) 희생자에 대한 호감 2) 가해자에 대한 반감 그리고 3) 희생자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고려되는가의 정도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Raney & Bryant, 2002).

해당인물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그 인물의 호감 혹은 반감의 정도를 촉진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희생자에 대한 고통 내지 핍박이 묘사의 사실성에 따라, 확실한 도덕적 판단의 준거가 될 경우, 상반된 방향으로 뚜렷한 감성성향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반감정이입은 폭력 희생자에 대한 연민이, 가해자를 향한 적대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감정 이입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시청자에게 지각될 수 있다. 수용자인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감시, 판단하는 판관의 역할을(untiring moral monitors) 수행하며,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혐오 내지 증오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가 처형되는 장면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Zillmann, 1991a, 1991b). 희생자가 가해자에 의해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희생자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부정적 정서가 표출 될 수 있다. 이는 분화된 감성적 성향이 정서적 체험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 때 시청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수준의 도덕적 타당성 개념과 내용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판단 및 이에 따른 감정 작용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사건에 대한 지각 및 판단정도는 문화 간 관여의 수렴과 확산의 정도를 차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용자 속성과 서로 결합하여 관여의 내, 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관여의 내적 측면에서 피험자 요인은 정서반응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매체폭력자극의 문화적 속성에 근거한 외적 관여 특성을 보여 주는 희생자-가해자-구도로 구성된 규범불일치 폭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 매체 폭력의 메시지 요소가 문화적 속성을 내포할 경우 반감정이입은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문화관여 효과를 중재하기에, 도덕적 판단에 따른 감정경험은 문화 간 분화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와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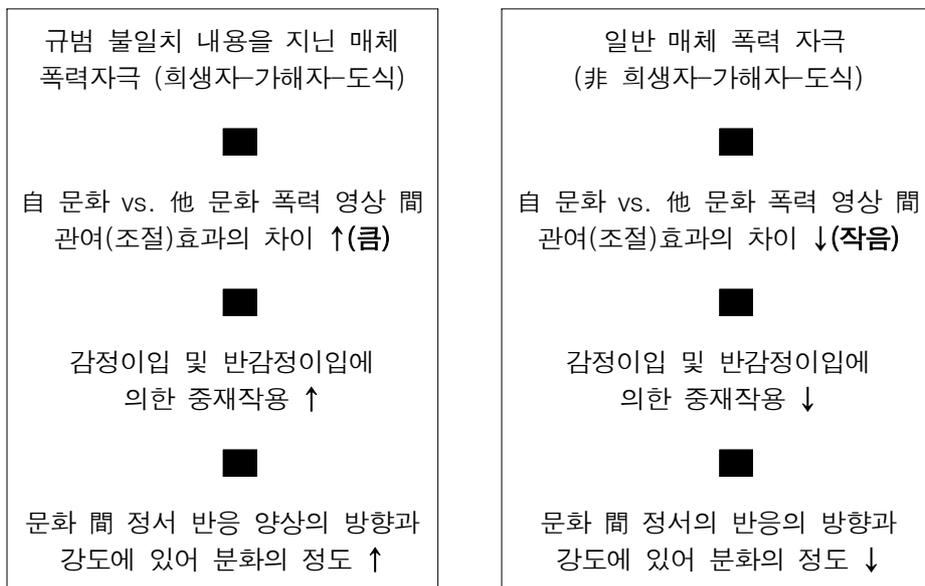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기된 연구문제와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 1 : 폭력 자극의 문화 특성에 따라 한, 독 청소년 間 정서 반응양상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규범 특성의 유무에 따라 - 규범불일치 vs. 일반(규범 비 불일치) 자극 - 그 차이는 두드러질 것이다.

첫째, 희생자-가해자-구도(the victim-assailant-plot)로 구성된 규범불일치(norm-incompatible) 매체자극에 대한 반응은 시청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의해 유발된 적대적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연민을 - 슬픔 - 강화시키며, 대부분의 경험된 정서반응들은 가해자 변인으로부터 환원되어 질 수 있다. 만약 매체자극이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면 문화적 요인은 관여측면에서 피험자의 정서반응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매체사건들은 이러한 문화관여에 근거하여 문화 간 서로 다른 유형의 정서프로파일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될 수 있다. 즉 매체폭력자극의 문화적 속성에 근거한 정서반응은 문화집단 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희생자-가해자-구도로 제시된 규범불일치 폭력과 희생자-가해자-구도가 아닌 일반폭력자극 사이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규범불일치 자극은 일반폭력 자극에 비해 감성성향의 질적 분화에 - 부정적 방향으로 -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영향력은 보다 강한 부정적 정서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 문화관여에 따른 감성성향은 반감정이입의 중재에 의한 문화 간 정서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일반 폭력 자극은 규범불일치 폭력자극과는 다른 유형의 정서프로파일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가해자-희생자-도식에 의한 도덕적, 규범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문화변인의 조절작용에 의한 반감정이입의 중재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 후자의 경우 문화적 요인에 따른 의미 관여반응보다는 매체자극의 일반적 속성에 의한 수동적 정향반응양식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 “문화관여 및 반감정이입의 중재에 따른 정서 분화과정”에 대한 모델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H. 2 : 한, 독 청소년은 매체폭력 자극의 속성에 따라 - 동형 vs. 이형 제시 조건 - 서로 다른 정서반응 양식을 보일 것이다.

둘째, 규범불일치 폭력 자극과 일반(규범 비 불일치)매체폭력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위에서 지적하였다. 각각의 매체 자극을 문화동형(culture-homo condition) 혹은 문화이형(culture- hetero condition) 조건에서 제시할 경우 서로 다른 양상의 정서적 반응이 기대될 수 있다. 문화동형 조건에서 규범 불일치 폭력 자극과 일반 폭력 자극사이의 의미관여와 자극의존 반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 문화이형 조건에서는 그 의미가 덜 분화된 보다 매체 자극 속성에 의존된 정향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관여 유무에 따른 문화 간 상이(相異)한 정서 반응양상은 폭력특성과 문화특성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에 대한 “매체 폭력의 구성 형식에 따른 문화 간 정서분화 모델”이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1] 문화관여 및 반감정이입의 중재에 의한 정서분화과정

나로 편집해 단일 영상단위로 사용하였다. 각 영상들은 가급적 대화나 설명 없이, 가능한 음악 내지 음향효과만을 삽입하여 편집되어졌다. 상영 전 각 영상에 관한 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규범불일치 폭력물의 경우 각 사건의 전개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해 한, 독 청소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모든 영상단위는 한국과 독일 청소년 모두 빛과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고출력 스피크와 대형 스크린으로 세팅된 비디오 시스템을 통해 제시되어졌으며, 상영시간은 각 영상단위 당 5분씩 전체 러닝타임은 약 30분정도 걸렸다. 각 영상 자극단위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아래 순서와 동일하게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다.

1. 문화 중립 폭력: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먹이의 사슬, 원주민의 코끼리사냥 및 사냥꾼들의 불법적 동물사냥 (다큐멘트)
2. 독일 규범 불일치 폭력: 유대인을 핏박, 처형하는 장면과 가스실에서의 공포 그리고 시체를 소각하는 장면 (영화: 쉐들러리스트)
3. 한국 일반폭력: 휴전선 북쪽 병커에서 벌어진 남, 북한 병사들 간의 폭력적인 총격 장면 (영화: J.S.A.)
4. 문화중립 폭력: 환자에 대한 뇌수술을 하기위해 뇌를 절개한 후 봉합하는 장면 (다큐멘트)
5. 한국 규범 불일치 폭력: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공수부대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묘사들 (다큐멘트)
6. 독일 일반폭력: 계속되는 구축함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독일 잠수함 선원들의 긴장, 갈등 그리고 좌절 (영화: Das U-Boot)

4. 측정도구

각 폭력장면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느낌을 평정(rating)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아이저드(Izard)의 정서분화척도 (Differentielle Affekt Skala: DAS)가 사용되어졌다. 독일 피험자에 대해선 메르텐과 크라우제(Merten & Krause, 1993)에 의해서 번역, 표준화된 DAS 독일어버전을, 한국피험자에게는 저자에 의해 번역된 DAS 한국어버전이

직접 연구에 이용되어졌다. DAS는 전체 10가지의 느낌을 표현하는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분노, 역겨움, 경멸, 불안, 수치 그리고 죄책감등의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즐거움, 놀람을 제외한 7개의 형용사는 부정적 정서로 분류 될 수 있다. 각 하부척도는 3개의 서로 연관된 형용사 문항들을 포함하며, DAS 설문지 전체는 30개의 정서관련 형용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DAS 척도 중 흥미와 즐거움을 제외한 놀라움 및 나머지 7개의 부정적 정서를 - 슬픔, 분노, 역겨움, 경멸, 불안, 수치 그리고 죄책감- 포함한 총 8개의 정서가 종속변수로 측정되어졌다.

5. 실험설계

첫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독립 이요인 변량분석 실시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문화 간 차이 검증은 다변량 분석을 통해 주 효과 및 종속변인의 각 자극 수준 간 결합효과(η^2 계수)의 측정을 통해 분석되어졌다. 요인집단 간 분석에서 규범 불일치 및 일반 폭력매체 자극의 영상단위는 종속변인의 각 수준으로 8개의 정서문화 척도에 배속되어져 유의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상기 분석에서 문화변인은 주 효과 측정을 위한 단 변인으로 고려되어졌다.

두 번째 가설은 반복측정에 의한 이요인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졌다. 피험자 간 요인에는 한, 독 청소년 집단이 각각 배속되었으며, 피험자 내 요인의 각 수준엔 이형폭력(hetero-violence)자극 즉 문화 규범불일치 폭력장면과 일반 폭력자극 단위가 배정되어 각 집단 내에서 반복 측정되어졌다. 피험자들의 성별변인은 공변인으로 통제되어 졌으며, 피험자 내 효과 분석에서 문화변인과 함께 폭력자극 속성과의 상호작용의 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사후 검증형식으로 실시된 두 개의 중립자극을 포함한 모든 영상자극 단위에 대한 주관적 부정성(subjective negativity) 평정의 결과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자극 선정의 준거로 사용되었다. 주관적 부정성의 평정은 서열속성으로 인해 비 모수적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어졌다.

V. 결 과

1. 결과분석

1) 다 변량 효과검증

첫 번째 가설 “문화관여와 폭력영상 자극의 규범 불일치성 유무에 따른 문화 간 정서분화 양상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가 (표.1)에 제시되어져 있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주 효과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역겨움을 제외한 모든 DAS 하부척도에서 문화변인, 즉 문화관여에 의한 종속변인 수준 간 분화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겨움은 문화특성과 성별특성에 의한 주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문화변인에서 높은 연합강도를 통해 전체변량에 대해 만족할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성별 변인 η^2 : 10.6%, 문화 변인 η^2 : 29.8%). 그 외의 나머지 하부척도 들에선 성별변인에 따른 정서분화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모든 정서에 서 문화변인에 의한 주 효과가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며, 놀라움, 슬픔, 분노, 역겨움, 경멸, 죄책감 등에서는 높은 계수 값을 통해 문화 간 정서분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η^2 : 25.4%~37%).

2) 매체자극 수준 간 효과크기 검증

두 번째, 종속변인의 각 수준으로 배속된 폭력양식과 각 문화특성에 따른 정서분화 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1. 독일문화 규범 불일치 - 가해자-희생자-도식 - 폭력영상 단위인 “유대인 학살”의 경우(이하 Holocaust로 명명), 놀라움, 경멸, 불안, 수치심, 죄책감등의 전체 5개 하부척도에서 문화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슬픔, 분노, 역겨움 등의 정서에서 문화 간 아무런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놀라움, 경멸, 죄책감의 경우 전체변량에 대한 만 족 할 수준의 자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나(η^2 : 25.3%, 22.2%, 14.9%), 수치심, 불안감 같은 정서에서는 상대적으

로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한국 일반폭력 영상인 "J.S.A"에 대한 문화 간 분화효과는 역겨움, 수치, 죄책감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하부정서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유의하게 검증된 세 하부척도 모두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량 간 결합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eta2: 11.9%, 5.9%, 15.5%).

〈표 1〉 문화관여 및 반감정어입의 중재에 따른 문화 간 정서 분화효과

독립 변인	종속변인으로서 각 매체 자극 수준에 대한 DAS 정서 척도	다변량 검증		집단 수준 간 효과 검증			
		Wilks' Lambda	eta 2	F	df	Sig.	eta 2
문화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14,186***	,290	48,125	1/142	,000***	,253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26	1/142	,723	,001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13,348	1/142	,000***	,086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4,646	1/142	,033*	,032
성별 (공변인)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1,722	,047	3,745	1/142	,055	,026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820	1/142	,179	,013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2,504	1/142	,116	,026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046	1/142	,830	,000
문화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11,832***	,254	,020	1/142	,889	,000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054	1/142	,817	,000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11,986	1/142	,001**	,078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5,612	1/142	,019*	,038
성별 (공변인)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982	,027	2,209	1/142	,139	,015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2,682	1/142	,104	,019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3,039	1/142	,083	,021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718	1/142	,398	,005
문화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13,429***	,277	,100	1/143	,752	,001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39	1/143	,710	,001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29,395	1/142	,000***	,171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027	1/143	,869	,000
성별 (공변인)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337	,010	,318	1/143	,574	,002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243	1/143	,574	,009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636	1/143	,574	,004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610	1/143	,436	,004
문화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14,738***	,298	,495	1/142	,483	,003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9,116	1/142	,000***	,119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9,914	1/142	,002**	,065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472	1/142	,493	,003
성별 (공변인)	1. 규범 불일치 폭력 (독)	4,130**	,106	,019	1/142	,892	,000
	2. 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1,064	1/142	,001**	,072
	3. 규범 불일치 폭력 (한)			1,801	1/142	,182	,013
	4. 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1,792	1/142	,183	,012

한, 독 청소년의 매체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문화관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독립 변인	종속변인으로서 각 매체 자극 수준에 대한 DAS 정서 척도	다변량 검증		집단 수준 간 효과 검증			
		Wilks' Lambda	eta 2	F	df	Sig.	eta 2
문화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13,929***	,285	40,831	1/143	,000***	,222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620	1/143	,205	,011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33,882	1/142	,000***	,192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5,385	1/143	,022*	,036
성별 (공변인)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1,016	,028	,128	1/143	,721	,001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2,049	1/143	,155	,014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015	1/143	,904	,000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005	1/143	,947	,000
문화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5,270**	,131	5,609	1/143	,019*	,038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670	1/143	,414	,005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6,614	1/142	,011*	,044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2,367	1/143	,126	,016
성별 (공변인)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3,791**	,098	6,779	1/143	,010*	,045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7,750	1/143	,006**	,051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778	1/143	,379	,005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7,928	1/143	,006**	,053
문화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8,447***	,194	6,276	1/143	,013*	,042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8,939	1/143	,003**	,059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30,475	1/142	,000***	,176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1,697	1/143	,195	,012
성별 (공변인)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1,102	,031	,545	1/143	,462	,004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121	1/143	,728	,001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1,351	1/143	,247	,009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063	1/143	,803	,000
문화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20,548***	,370	24,994	1/143	,000***	,149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26,182	1/143	,000***	,155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76,514	1/142	,000***	,349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2,032	1/143	,156	,014
성별 (공변인)	1.규범 불일치 폭력 (독)	,742	,021	1,609	1/143	,207	,011
	2.규범 비 불일치 폭력(한)			2,037	1/143	,156	,014
	3.규범 불일치 폭력 (한)			2,330	1/143	,129	,016
	4.규범 비 불일치 폭력(독)			,752	1/143	,387	,005

유의도 수준: ***: $p < 0,001$ **: $p < 0,01$ * : $p < .05$
 경멸, 죄책감, 수치심의 경우 검증력 Index로 Pillai's-Spur 사용
 (Box-M-Test 결과 $p < .05$)

3. 가해자-희생자-도식으로 구성된 한국규범 불일치 자극인 “광주항쟁”의 경우 한, 독 청소년 집단 간 뚜렷한 정서분화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8개의 DAS 하 부척도 모두에서 문화변인에 의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어졌다. 연합강도의 비율은 분노, 경멸, 수치, 죄책감 등의 척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변인 간

정서분화에 의한 전체 변량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eta2: 4.4%) 제외한 나머지 정서 놀라움, 슬픔, 역겨움 등에서도 대체로 만족할 변량 간 결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eta2 > 5%).

4. 독일일반 폭력영상 자극인 “Das U-Boot”는 문화 간 정서분화효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놀라움, 슬픔, 경멸 등의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각 정서의 연합 강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eta2: 3.2%, 3.8%, 3.6%). 그 이외에 나머지 다섯 하부척도에 대한 한, 독 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분화효과는 확인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반감정이입 조절효과의 유무에 따른 정서분화양상을 통해 매체자극의 특성 간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해자-희생자-도식과 비 가해자-희생자-도식 간 비교에서, 한국특성 자극의 경우 “J.S.A.”에 비해 “광주항쟁”을 다룬 영상단위에서, 독일영상 자극에서는 “Das U-Boot”에 비해 “Holocaust”를 다룬 규범불일치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정서에서 더 분화된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변량에 대한 연합강도의 크기도 규범 비 불일치 - 일반 폭력 - 조건보다는 규범 불일치 조건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즉 정서분화 강도에 있어 폭력구성양식 사이의 차이점을 시사해 준다. 단순한 문화 관여에 의한 반응보다는 반감정이입이라는 중재작용을 통해 매체 정서의 분화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결과분석

두 번째 가설 “폭력자극 구성양식의 이형성에 따른 문화 간 정서 분화 차이검증”에서 독일 폭력자극은 비교대상의 선정으로부터 제외되어졌다. 실험을 위한 비교자극 선정을 위해 사후 검증형식으로 실시된 주관적 부정성평가에서 “Das U-Boot”는 독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도 일관된 평가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Das U-Boot”는 양 문화집단으로부터 주관적 부정성 최하위 순위로 평정되어 문화 간 정서 분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극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즉 “Holocaust”와 함께 독일규범 비불일치 자극으로 “Das U-Boot”를 선정할 경우 문화 간 효과검증을 기

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한국 이형 매체 폭력만을 비교를 위한 실험자극으로 선정하였다. 두개의 중성 매체폭력을 포함한 전체 6개 매체자극에 대한 평정결과를 통해 파악된 주관적 부정성 순위 경향(negative ranking tendency)은 다음과 같다(friedman-test).

- 독일 피험자 집단 :

Holocaust > J.S.A > 뇌수술 > 동물의 세계 & 광주항쟁 > Das U-Boot

- 한국 피험자 집단 :

Holocaust & 광주항쟁 > 뇌수술 > 동물의 세계 > J.S.A > Das U-Boot

한, 독 문화권 모두에서 각 청소년 집단 내 성별특성에 상관없이 남, 여 간 주관적 부정성 평가에 있어 일관된 순위배열경향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결과분석, 한국 이형 매체 폭력자극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가 (표.2)에 제시되어져 있다. 해당 표를 살펴 보면 8가지 하부척도에 대한 피험자 내 효과 및 피험자 간 분석결과가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피험자 내 분석에선 매체자극(폭력특성)과 문화변인 그리고 성별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석결과를, 피험자 간 분석에선 반복 측정된 이형 매체 폭력자극에 대한 두 변인 - 문화 및 성별요인 - 사이의 단순 주 효과를 비교해 주고 있다.

1) 피험자 내 효과분석 피험자 내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피험자 변인 내 분석에서 이형(hetero)의 매체폭력요인에 - 규범 불일치 및 일반 폭력 특성 - 의한 정서분화효과는 거의 확인 될 수 없었다. 불안과 수치심을 제외한 모든 정서에서 - 놀라움, 슬픔, 분노, 경멸, 불안, 죄책감 - 폭력구성 형식에 따른 폭력자체 속성에 의한 효과가 전체 청소년 집단의 분화수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효과는 단지 불안과 수치심에서만 유의하게 확인되었지만, 불안의 경우 폭력요인(매체 특성)과 문화요인 및 성별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수치심의 경우 변인 간 연합강도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eta2: 2.7%), 실질적 분화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폭력요인과 성별요인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불안에서 두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주 효과와 문화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보이고 있으며, 전 자의 연합강도의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eta2: 3,6%). 전반적으로 DAS 모든 하부척도에서 매체특성과 성별특성과의 반복측정에 의한 정서적 분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3. 폭력요인과 문화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거의 모든 정서에서 확인 될 수 있었다. 불안을 제외한 DAS 하부척도 모두에서 - 놀라움, 슬픔, 분노, 경멸, 역겨움, 수치, 죄책감 - 두 요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의 전체변량에 대한 결정계수 또한 만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eta2: 8,3% ~ 27%). 연합강도의 비율은 분노, 역겨움, 경멸, 죄책감 등의 하부정서척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두 변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분화효과가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표 2> 폭력 자극 구성 형식의 이형성에 따른 문화 간 정서 분화 효과

Source	종속 변수 DAS-척도	피험자 내 효과 분석			피험자 간 효과 분석		
		Greenhouse-Geisser F	df	Eta 2	F	df	Eta 2
폭력 특성	놀라움	,252	1/144	,002			
폭력*문화		12,991***	1/144	,083	6,400*	1/144	,043
폭력*성별		,148	1/144	,001	2,565	1/144	,017
폭력 특성	슬픔	,065	1/143	,000			
폭력*문화		12,985***	1/143	,083	3,745	1/143	,026
폭력*성별		,000	1/143	,000	3,066	1/143	,021
폭력 특성	분노	,823	1/144	,006			
폭력*문화		27,725***	1/144	,161	8,788**	1/144	,057
폭력*성별		,195	1/144	,001	,801	1/144	,006
폭력 특성	역겨움	3,255	1/143	,022			
폭력*문화		52,956***	1/143	,270	,566	1/143	,004
폭력*성별		3,503	1/143	,024	5,955*	1/143	,040
폭력 특성	경멸	2,851	1/144	,019			
폭력*문화		27,862***	1/144	,162	16,769***	1/144	,104
폭력*성별		2,181	1/144	,015	,414	1/144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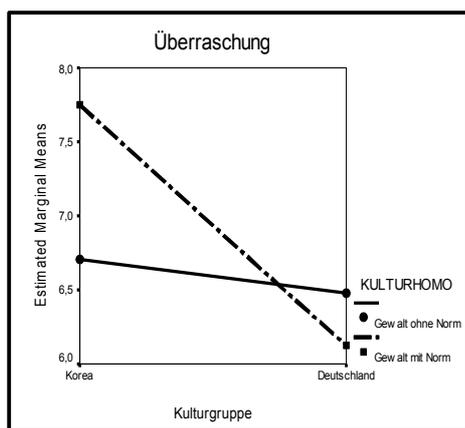
Source	종속 변수 DAS-척도	피험자 내 효과 분석			피험자 간 효과 분석		
		Greenhouse -Geisser F	df	Eta 2	F	df	Eta 2
폭력 특성	불안	4,988*	1/144	,033	3,277	1/144	,022
폭력*문화		5,362*	1/144	,037			
폭력*성별		5,530*	1/144	,036			
폭력 특성	수치	3,941*	1/144	,027	22,881***	1/144	,137
폭력*문화		14,740***	1/144	,093			
폭력*성별		3,594	1/144	,024			
폭력 특성	죄책감	,361	1/144	,002	58,907***	1/144	,290
폭력*문화		24,50***	1/144	,145			
폭력*성별		,083	1/144	,001			

유의도 수준 :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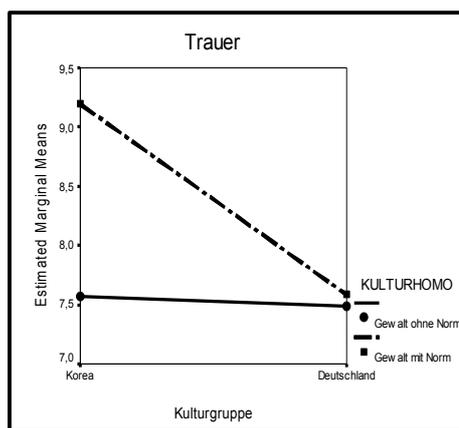
상호작용 효과 : 폭력 특성*문화특성, 폭력 특성 * 성별특성

피험자 간 효과 분석시 문화특성과 성별특성은 각각 단 변인으로서 비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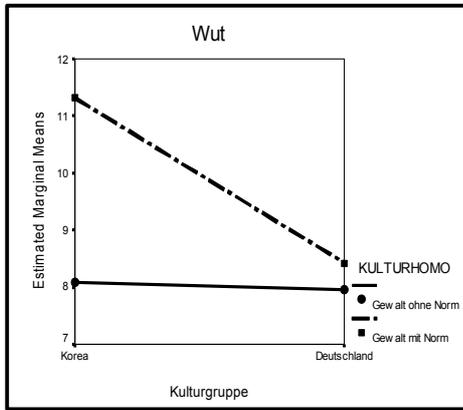
후속 연구로서 매체(폭력)요인과 문화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디로 부터 유래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을 제외한 유의하게 검증된 7가지 하부척도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전체 하부정서 척도에 대한 상호작용 그래프가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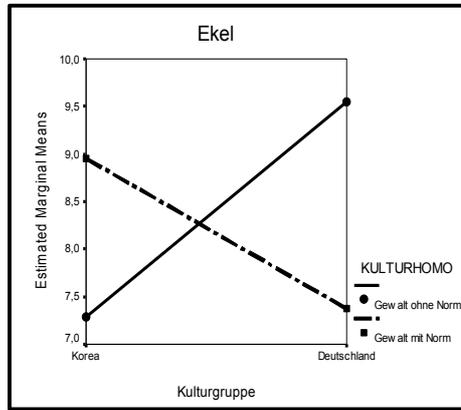
[그림 3.1] 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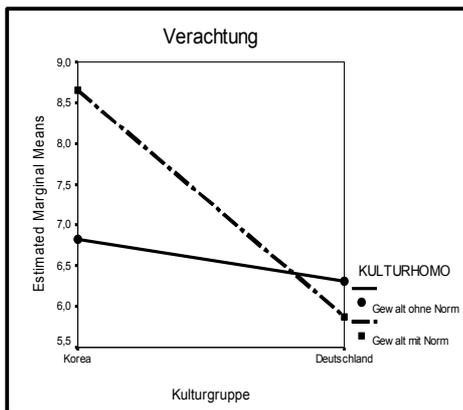
[그림 3.2]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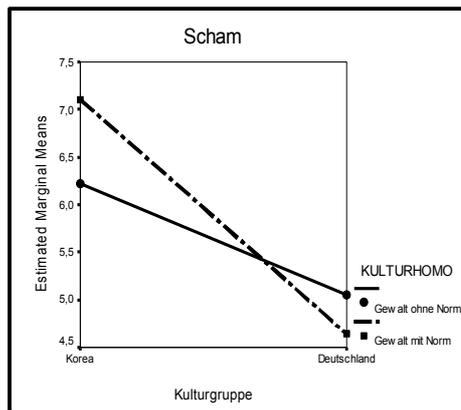
[그림 3.3]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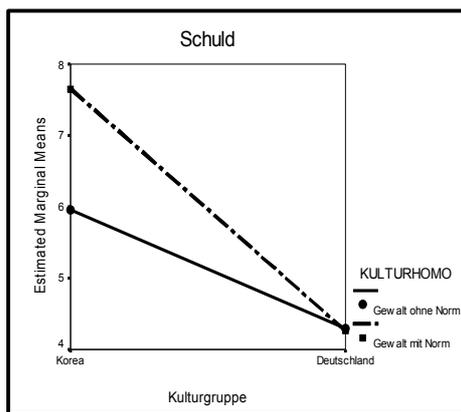
[그림 3.4] 역겨움



[그림 3.5] 경멸



[그림 3.6] 수치심



[그림 3.7] 죄책감

첫 번째 정서 “놀람”에서 폭력요인과 문화요인 간 직교유형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문화집단 간 효과의 크기는 규범 비불일치 자극 “J.S.A” 보다 규범 불일치 자극 “광주항쟁”에서 기인된 듯 보인다. 한국 청소년은 “광주항쟁”에서, 독일 청소년은 “J.S.A”에서 해당 정서에 대한 강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으나, “J.S.A” 보다는 “광주항쟁”에 의한 분화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가파른 기울기).

두 번째 정서 “슬픔”에서 한국 청소년 집단으로부터 기인된 왼쪽으로 편향된 상호작용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청소년집단은 상호작용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평에 가까운 기울기). “J.S.A”에 대한 문화집단 간 슬픔의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에, 한국 청소년집단은 “광주항쟁”에 대해 강한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하부척도 “분노”의 경우도 “슬픔”과 동일한 유형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요인과 문화요인이 불일치하는 이형조건은 독일 청소년집단에서 두 매체자극 간 “분노”의 분산성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반면, 한국 청소년집단에서는 보다 분화된 양상으로, 즉 “광주항쟁”에서 강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호작용의 크기는 한국 청소년 집단으로부터 기인된 프로파일 양상에 반영되어 있다.

네 번째 정서 “역겨움”에 대한 프로파일은 직교(orthogonal) 유형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청소년집단의 규범 비불일치 자극 “J.S.A”에 대한 강한 정서적 반응과 규범 불일치 자극 “광주항쟁”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반응양상은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와 직교유형의 교차그래프를 통해 명시되어있다.

다섯 번째 “경멸”에선 “놀라움”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직교유형의 패턴을 보이지만 규범 비불일치 자극에 대한 한, 독 청소년 간 분산성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매우 완만한 기울기) 규범 불일치 자극에서는 그 반응의 정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정서 “수치심”에선 상호작용이 직교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향은 한국 청소년집단에서 더 명확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화 동형조건인 규범 불일치자극 “광주항쟁”에서 보다 강한 수치심을 느끼는 반면, 독일 청소년의 경우 상반된 반응 패턴을 보여준다. 즉 매체폭력 구성양식에 따른 문화 간 상이한 반응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 번째 정서척도인 “죄책감”의 경우도 한국 청소년집단으로부터 기인된 좌로

가파르게 기운 상호작용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집단의 경우 문화 이형적 폭력 자극 조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 청소년은 “광주항쟁”에서 강한 “죄책감”을 표출하고 있다.

2) 피험자 간 효과분석

단 변인 간 주 효과 비교에서 놀라움, 분노, 경멸, 수치심, 죄책감 같은 DAS 정서 척도에서 문화변인에 의한 정서분화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특성에 의한 주 효과는 “역겨움”에서만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하부척도들에 대한 성별특성에 의한 정서분화 효과는 전혀 없었다. 문화변인의 경우 경멸,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등에서 유의도 수준뿐만 아니라, 변인간의 결합 비율을 의미하는 연합강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η^2 : 12.8%~31%). 슬픔과 불안의 경우 두 단 변인에 - 문화변인 및 성별변인 - 의한 어떠한 분화효과도 확인하지 못했다.

VI. 논 의

질만과 레이니 & 브라이언트의 재미에 대한 연구들은 감성과 인지의 통합작용에 근거하고 있다. 단순히 재미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들의 이론적 개념들을 한, 독 청소년 간 매체폭력에 의한 정서의 분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차용, 본 연구에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문화관여에 의한 조절과 감정이입 및 반감정이입의 매개를 통한 한, 독 청소년 간 매체정서경험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려는데 있었다.

첫 번째 연구가설에서 역겨움을 제외한 7개 정서척도 모두에서 문화 관여변인에 의한 주 효과가 확인되어졌다. 또한 각 정서에 대한 높은 연합강도 계수는 한국 및 독일 매체폭력 자극 간 문화특성에 의한 뚜렷한 정서분화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종속변인의 각 수준 간 효과 검증에서 규범 불일치 매체자극에 의한 정서 분화 효과가 한, 독 청소년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문화관여보다는 반감정이입이 정서적 경험을 증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매체사건의 비규범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문화 간 조절작용은 문화 간 정서 분화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었다. 규범 불일치 자극과 비 불일치 일반 매체폭력에 대한 반응 경향에서의 차이는, 문화 간 정서 매체체험 양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각 정서에 대한 상호작용 프로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자극과 문화변인이 일치하는 동형조건하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J.S.A"에 비해 "광주항쟁"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반응 양상은 규범 불 일치성에 근거한 의미관여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문화동형(culture-homo) 조건하에서 규범 불일치 자극은 반감정이입에 의한 강한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독일 청소년과는 다른 패턴의 반응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2. 자극과 문화변인이 불일치하는 이형조건(culture-hetero)에서 독일 청소년집단은 놀라움, 역겨움, 경멸에서 규범 불일치 자극에(광주항쟁)비해 일반 폭력자극(J.S.A)에서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응유형은 관여에 따른 의미반응이라기보다는 매체특성에 대한 정향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상호작용패턴 비교에서 역겨움 이외에 완전한 직교패턴의 상호작용 유형은 확인 될 수 없었으며, 한 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경향성만을 보여 주고 있다.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의 정서에서 좌로 편향된, 비직교적(non-orthogonal) 유형의 상호작용 패턴은 반감정이입에 따른 문화 관여적 조절 효과로 함의될 수 있다. 독일 청소년집단의 반응양상은 거의 분화되지 않은(undifferentiated), 두 매체 자극 간 변산성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종합하자면, 피험자 변인과 메시지(폭력) 변인사이에 문화관여에 의한 효과가 각 문화권 청소년들의 감정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 폭력자극 보다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규범 불일치 자극에서 문화 간 조절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DAS 하부척도에서 높은 설명력을 통해 입증될 수 있었다. 문화적 맥락은 매체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요하는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악구도에 의한 도덕성과 부도덕성이 확실하게 대비 될 때 개인의 도덕적 추론의 전거는 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공유된 관념에 의거하여 유추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한계점 및 몇몇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 될 수 있다. 우선 한, 독 문화 규범불일치 및 규범 비불일치 매체폭력자극 선정시 폭력의 내용(content) 및 형식의 등가성(equabil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매체폭력의 경우 -

광주항쟁과 J.S.A. - 두 폭력 영상단위 모두 대인, 신체적, 도구적, 의도적 폭력행위라는 공통된 속성을 모두 보인 반면, 독일의 “Das U-Boot”의 경우 대물에 대한 폭력묘사에 주를 이루며, 비신체적, 비의도적이라는 폭력속성으로 인해 다른 독일 규범 불일치 매체자극인 “Holocaust”와 그 속성상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매체 폭력자극은 두 번째 문화 간 비교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 폭력 자극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매체 폭력자극만을 실험자극으로 선정, 제시할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상이성으로 인해 독일 청소년들의 매체사건에 대한 이해정도는 한국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양 문화권 청소년 모두 메시지의 내용적 등가성이라는 조건하에서의 실험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 전 독일 청소년들에게 한국 규범불일치 및 규범 비 불일치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사건 인식 정도와는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 한국 청소년들은 상기 자극 및 이와 유사 자극에 여러 번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규범 비 불일치 자극인 J.S.A.의 경우 둔감화 효과도 기대될 수도 있는 - 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 간 비교를 목적으로 성별변인을 공변인으로 통제 한 상태에서 해당 실험이 수행되어졌다. 성별특성에 따른 정서 반응양상에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면 앞으로 성별을 분리한 실험설계를 통해 연구의 수행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은 향후 진행될 연구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esch, E. (1980). *Kultur und Handlung: Einfuehrung in die Kulturpsychologie*. Bern: Huber.
- Cantor, J. (1994). Fright reactions to mass media productions. In J. Bryant & Zillmann, D.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213-245). Hillsdale.
- Cantor, J. (2003). Media and fea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A. Gentile (Ed.), *Media violence and children* (pp.185-204). Westport, CT: Praeger.
- Dawkins, R. (1976). *The selfish gen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 Ekman, P. (1993). Facial experssion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pp. 384-392.
- Feschbach, N.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Eisenberg, N. & Strayer, J.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146-162). Cambridge.
- Groebel, J. & Gleich, U. (1993). *Gewaltprofil des deutschen Fernsehprogramms. Eine Analyse des Angebots privater und oefentlichrechtlicher Sender*. Opladen
- Harton, H. & Bourgeois, M. (2004). *Cultural elements emerge from dynamic social impact*. See Schaller & Grandall 2004, pp. 41-75
- Heath, C. Bell, C. & Sternberg, E. (2001). Emotional selection in memes: the case of urban legends. *J. Personal. Soc. Psychol.* Vol. 81, pp. 1028-1041
- Hussong, L. (1998). *Aufmerksamkeit und Gedaechnis von Sensitizern und Repressern fuer bedrohungsbezogene Bildelemente aus Fernsehnachrichten*.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der Uni. des Saarlandes.
- Kim, M.-J. (1999). *Experimentelle Untersuchungen zur Reaktivitaet in einer Schmerzsituation und Persoelichkeitsmerkmale bei deutschen und koreanischen*

- Frauen*. Dissertation Julius- Maximilians-Universitaet Wuezburg.
- Lonner, W. J. & Adamopoulos, J. (1997). Culture as antecedent to behavior. In J. W. Berry, Y.H. Poortinga & J. Pande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econd Edition, Vol. 1: Theory and Method* (pp. 43-83). Boston: Allyn and Bacon.
-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pp. 224-253.
- Merten, J. & Krause, R. (1993). *DAS :Differentielle Affekt Skala*. Arbeiten der Fachrichtung Psychologie, Universitaet des Saarlandes, Saarbruecken.
- Mo, S.-H. (2000). *Medieninduzierte Angst und individuelle Bewaeltigungsstrategien*.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Universitaet des Saarlandes, Saarbruecken.
- Raney, A. (2002). Moral judgement as a predictor of enjoyment of crime drama. *Mediapsychology, Vol. 4*, pp. 307-324.
- Raney, A. A. & Bryant, J. (2002). Moral judgment and crime drama: An integrated theory of enjoy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2*, pp. 402-415.
- Scherer, K. R. (2000). Emotions as episodes of subsystem synchronization driven by nonlinear appraisal processes. In M. D. Lewis & I. Granic (Eds.) *Emotion, development, and self-organization: Dynamic systems approaches to emotional development* (pp. 70-99). New York/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rer, K. R. (2001a). Appraisal considered as a process of multi-level sequential checking. In K. R.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 (Eds.),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Methods, Research* (pp. 92-120).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erer, K. R., Wallbott, H. G., & Summerfield, A. B. (Eds.). (1986). *Experiencing emotion: A crosscultural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b, J. (1999a). *Handlung, Interpretation, Kritik. Grundzuege einer textwissenschaftlichen Handlungs- und Kulturpsychologie*. Berlin, New York: de Gruyter.
- Triandis, H.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omsdorff, G. (1993). Kulturvergleich von Emotionen beim prosozialem Handeln. In: H. Mandl, M., Dreher & H.J., Kornadt (Hrsg.), *Entwicklung und Denken im kulturellen Kontext* (pp. 3-25). Goetingen, Hogrefe.
- Zajonc, R. B. (1984). On primacy of affect.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259-2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Zillmann, D. (1991a). Empathy: Affect from bearing witness to the emotions of other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Responding to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es* (pp. 135-168). Hillsdale: Erlbaum.
- Zillmann, D. (1991b). The logic of suspense and mystery. In J. Bryant & D. Zillmann (Ed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of reaction and process* (pp. 281-303). Hillsdale, NJ: Erlbaum.
- Zillmann, D. (1994). *Mechanisms of emotional involvement with drama. Poetics, Vol. 23*, pp. 33-41.
- Zillmann, D. (1996). The psychology of suspense in dramatic exposition. In P. Vorderer, H.J. Wulff & M. Fridrichen (Eds.), *Suspense conceptualizations, theoretical analyses, and empirical explorations* (pp. 199-231). Mahwah: Erlbaum.
- Zillmann, D. (1998): The psychology of the appeal of portrayals of violence. In: J.H. Goldstein [Hrsg.] (1998): *Why We Watch : The Attractions of Violent Entertai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illmann, D. (2000). Basal morality in drama appreciation. In I. Bondebjerg (Ed.), *Moving images, culture, and the mind* (pp. 53-63). Luton, England: Universitt of Luton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Influences on Media Affective Differences in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Involvement

Mo, Sang-Hyun*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ffective difference effects according to culturally specific norm-incompatible and non-norm-incompatible violent media stimuli between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The concept of involvement was extended as an intermediated variable for counter-empathy that can be caused by the assailant-victim-plot and was viewed in terms of a cultural dimension. In the first study, the main effects according to cultural variable were confirm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single cultural involvement effect, its effects mediated by counter-empathy in terms of affective difference were shown to be more differential. The results of the second research were as follows: 1.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subject interaction were confirmed between violence plots and cultural attributes in terms of the most negative emotions. The profiles of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groups indicated the presence of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motional reaction mode according to a stimuli-oriented or involvement-dependent pattern, 2. between subjects, the main effect by the interaction influences was between violence plots and the cultural attributes.

Key Words : cultural involvement, counter-empathy, affective difference, norm-incompatibility

투고일 : 3월 7일, 심사일 : 5월 7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